

ESG 경영과 대학의 역할

미래정책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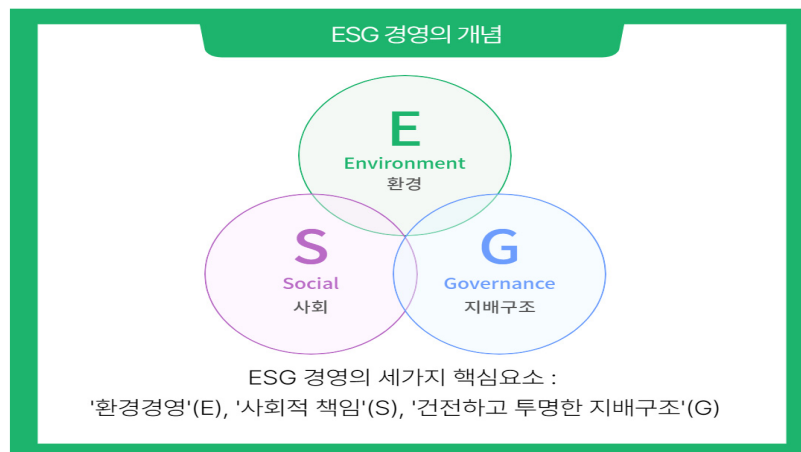
요약

- ESG가 경영의 키 컨셉(key concept)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을 넘어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과제로, 기업은 물론 발빠른 공공기관들도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대학들에서도 미래 세대의 일차적 관심사가 기업과 사회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인 만큼,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ESG 경영을 적극 교육해야 할 시점이다.
- 아울러 사립대학 역시 미래 세대를 육성해야 하는 공교육 담당기관으로서, 또한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는 공적기관으로서, ESG 경영의 실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대학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자 할 때 절차 등의 방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대학알리미에서의 ESG 경영 공시를 비롯해 향후 대학과 교육부 등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

- 최근 경영계의 화두는 ‘ESG 열풍’이라고 할 만함.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기업 부터 중소기업,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ESG는, ‘UN 글로벌콤팩트’의 2004년 보고서(<Who Cares Wins>)에 처음 등장한 이후, 2008년 미 월가의 모럴해저드에 기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에 따른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관심이 깊어지기 시작했음.



- 미 자유주의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이다’라고 주장한 이후 기업들은 이윤 창출에 집중하였고, 그것은 세계 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내용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
-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K-ESG 가이드라인’¹⁾을 발표하였음.
-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는 더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4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MZ세대가 바라보는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의 제품을 설령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MZ세대들은 비슷한 품질이라면 ESG 경영 여부가 구매기준이 되는 등 자신의 신념에 맞는 소비가 뚜렷함.

1) 기업이 ESG 평가를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스스로 ESG 성과를 진단하며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지침서

- 또한, 'ESG 경영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MZ세대들은 전반적인 국민인식 향상(38.4%),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27.9%), 대기업의 솔선수범 실천(27.6%) 순서로 응답함.
- 윤석열 정부의 ESG 경영의 중요성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의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ESG 관련 내용>

국정과제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기재부)

국정과제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금융위)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

- 2022년 6월 2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ESG 경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7대 중점과제²⁾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예정(2022년 7월)
 -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 예정.

2.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가. 기업의 ESG 경영

-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요건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 ESG 경영은 자본시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 자본시장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한 평가 수단으로 ESG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ESG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① ESG 공시제도 정비, ②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③ ESG 채권 발행 및 투자활성화, ④ ESG 민간평가기관 가이드라인 마련, ⑤ ESG 정보플랫폼 구축, ⑥ ESG 전문인력 양성, ⑦ 공공기관의 ESG 선도

- ESG 경영은 선진국과 대기업에 비해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 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ESG 경영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21년 1월 14일, ESG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그에 따르면, 2025년까지(1단계) ESG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2030년까지(2단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의무공시를 실시하며, 2030년부터는(3단계) 모든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외 600여개 이상의 ESG 평가지표가 운영되고 있고 표준화된 공시 및 평가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
-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공시는 국제적으로 GRI, SASB, TCFD 등³⁾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이마저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화된 기준은 아님.



-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를 설립해 통일된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으며(2022년 5월), 현재 각국의 의견을 수렴 중임.
- 이와 더불어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가 제정하는 글로벌 ESG 회계기준 초안에 대응할 한국형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꾸렸으며(2022년 2월), 2024~2025년경에는 국내에 적용될 ESG 기준서를 제정할 예정임.

나. 공공기관의 ESG 경영

- ESG 경영의 목적이기도 한 지속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ESG 경영 도입에 앞장서면서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는 문화조성을 기대하고 있음.

3) ① GRI -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
 ② SASB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장기업 ESG 공시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기구
 ③ TCFD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업들의 기후 관련 전략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2015년에 결성한 협의체

- 주요 공공기관은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각 다르기에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한국가스공사 : ESG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내에 ESG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핵심 의사결정 체제를 ESG 중심으로 전환, 수소 중심의 저탄소 경영과 수소 생산 인프라 확충 노력, KOGAS 상생협력 패키지를 추진해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 한국동서발전 :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 추진(폐염전을 활용한 태양광으로 환경문제 최소화 및 주민 소득 창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새활용과 연계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재활용이 힘든 폐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자원으로 변신시키는 새활용 프로젝트로 환경을 살리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근로자 이사회 참여 확대 등
- 2022년 2월 7일, 기획재정부는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ESG 관련 항목을 추가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ESG 공시 내용은, 국제 기준이나 국내 기업에 요구되는 수준에 비해서 제한적 일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공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적극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포용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자체 감사부서 현황’ 및 ‘청렴도 평가 결과’ 공시항목을 추가하여 반부패·청렴활동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중 ESG 항목>

분류	항목	공시 내용	주기
E	에너지 사용량	연간 총 사용량	정기(4월)
	폐기물 발생량	연간 폐기물 발생량	정기(4월)
	용수 사용량	연간 용수 사용량	정기(4월)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사고 발생 등	수시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저공해차량 구매현황	정기(7월)
S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정기(7월)
	동반성장 평가결과	평가 결과 등급	정기(7월)
	개인정보보호	진단결과 등급	정기(7월)
G	자체 감사부서 현황	조직, 업무분장 등	정기(4월)
	청렴도 평가결과	평가 결과 등급	정기(7월)

3. 대학의 ESG 경영과 대학의 역할

-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은, 교육과 인재양성이 갖는 공적 성격에 기인하여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관심 갖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
- ESG 경영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민인식 향상과 법·제도적 정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여기서는 아래의 세 가지에 주목하고자 함.

1) 첫째, 대학들은 ESG 인재 양성 및 ESG 분야 연구를 확대해야 함.

- ESG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학은 사회적 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SG 전문가를 육성할 책임이 있음.
-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최대 관심은 지속가능성인 만큼, 학생들에게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한 ESG 경영을 교육하는 것 역시 필수적임.
- 하버드대학과 스탠퍼드대학 등 해외 주요 대학들이 MBA 과정에서 ESG 강좌를 필수 교과로 운영하고 있듯이, 국내 대학들도 ESG 과목의 개설을 비롯해 교육과정 개편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본주의 대전환을 위한 5단계

하버드대학 ESG 수업 : 자본주의 다시 상상하기(Reimagining Capitalism) 중, 리베카 헨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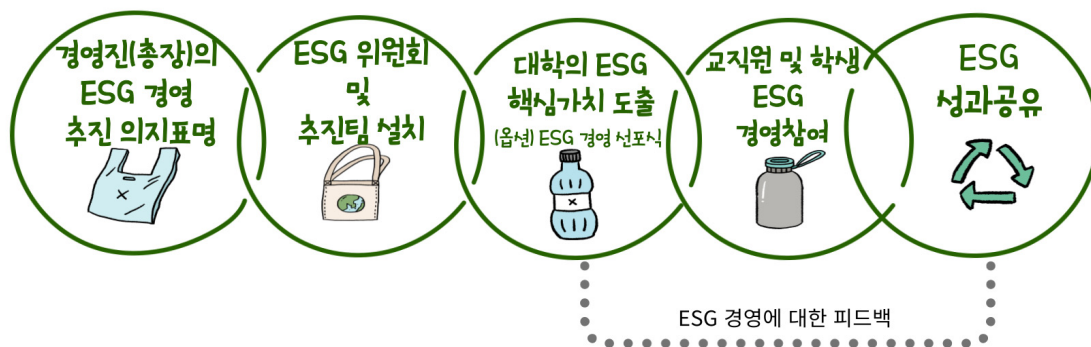


- 학부와 대학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특성화 교육 등에서도 ESG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게 된다면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획일화된 ESG 교육보다는 지역사회 사정과 지역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사회 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둘째, 대학들은 실천적 ESG 경영을 통하여 ESG 문화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환경보호와 미래세대를 위한 ESG 경영 실천에는 대학의 역할도 중요. 즉,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경영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ESG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대학가에서는 앞다투어 ESG 경영 선포식 등을 통하여 ESG 경영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왜 ESG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우리 대학은 ESG 경영을 한다는 식의 홍보 위주 이벤트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학의 구성원들이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하는 ESG 친화적 대학문화를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함.

대학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3) 셋째, 대학에도 ESG 경영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대학들이 ESG 경영에 대한 원칙적 지지와 포부를 밝히고 있으나, 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이나 안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대학에서도 공공기관과 같이 ESG 경영 문화확산의 방법으로 대학알리미⁴⁾를 통한 ESG 경영 공시를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의 ESG 경영 공시는 국내 ESG 평가지표와 공공기관의 ESG 경영 공시항목 등을 참고하여, 교육·연구의 업무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시가 가능한 ESG 경영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 대학알리미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제1항에 따라,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총 14개 항목에 대하여 공시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음.

'학교를 튼튼하게 학생을 행복하게' 미래교육 선도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혁신으로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KASFO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고등교육정책 전문기관으로 힘찬 도약을 시작 합니다!

〈주요 사업〉

-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 사학혁신 지원사업
- 대학 정보화 지원사업
-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 대학교육행정 연수사업
- 고등교육 경영 지원사업
- 고등교육 재정정보 집계·분석
-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제고 지원
- 고등교육 정책 연구·개발

